

제목:감상문

이름: 윤해원

소속: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전공:국제사회과학전공(2016년 3월 현재)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종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전공은 정치학이며, 일본과 한국의 비교정치경제학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한국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1차자료에 대한 접근과 자료의 청구방법, 확보한 1차자료의 활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논문의 연구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차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조사와 관련해 본 워크숍에서 얻은 성과로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1차자료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설계나 분석수법과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1차자료의 개념이나 중요성을 개괄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1차자료에 초점을 맞춰 이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1차자료에 대한 정보,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1차자료가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의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개념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소장기관에 방문해 직접 자료를 접해보는 것 사이에는, 대상을 이해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1차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의 활용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사논문의 분석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2차자료를 주로 활용해 왔고, 1차자료의 활용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헌들에 비해서, 특정 기관에 방문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다양한 기관이 소장하는 1차자료에 실제로 접근하여 자료를 검색해 봄으로써, 자료조사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거리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한국학 연구부문의 관계자 분들께 대단히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키미야 교수님, 나가사와 교수님, 코이케 님을 비롯해, 본 행사를 기획, 준비,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조사에 대한 지식과 문제의식이 한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